

한글 새소식

ISSN 1225-0538

625

2024. 9.

한글 새소식, 달마다 5일 퍼냄 | 제625호(2024. 9. 5.) | 1986년 6월 12일에 제3종 우편물 (나급 인가 받음) | 퍼냄 데: 한글학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 청주시립미술관에 전시된 <내가 아는 것>(작가: 강익중).

우리의 주장 1. 바르고 쉽고 고운 말을 가려 쓰자.
2. 일상의 글자살이는 한글로만 하자.
3. 한국말과 한글을 온 누리에 펼치자.

※ 한글 새소식에 실린 글의 내용은 우리 학회의 뜻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머리글	무돌의 한글사랑 김보희	2
서승효 선생 60주기·탄생 142돌	우리 외할아버지, 서승효님 이혜연	4
우리말과 우리	흥내말(의태어, 의성어)에서는 표준어와 방언 경계를 없애자 임규홍	6
	품격있고 아름다운 우리 말글을 온 누리에 정한성	8
	쉬운 금융용어 사용, 금융 문턱을 낮추는 지름길이다 서은아	10
한글과 우리	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한글 작품 <내가 아는 것> 강익중	12
	내가 바라는 한글 혁명 김숙희	14
한국어교육 이야기	선생님 가방은 요술 보따리 최유미	15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는 한류의 기본 최홍길	17
별들의 누리	외래어 범벅 금융용어, 외계어 아닌가요? 이지아	19
시	참아욱꽃(무궁화)와 붉은 배롱나무꽃(백일홍)과 함께 김리박	20
우리 학회 소식	한글학회 창립 116돌 기념 잔치	21
이웃 소식	허버트 박사 75주기 추모대회	22
우리말 알아맞히기	겹받침과 닿소리가 만난 경우의 발음	24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saesosik@hangeul.or.kr

한글 새소식, 1972년 8월 8일에 월간으로 등록(등록번호: 종로 라00082) 발행인: 김주원 주간: 김한빛나리 인쇄: 형설출판사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02) 738-2236~7 전송: 02) 738-2238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 한글 새소식은 회비를 내신 일반회원(한말글문화협회 회원)에게 보내 드립니다.
- 한글 새소식 일반회원이 되시려면, 회비(1년치 10,000원)를 국민은행 009-01-0428-355(예금주: 한글학회)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한글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입회 신청서는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전송 또는 누리편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무들의 한글사랑



김보희

무돌 국제한국학연구소 부소장
bohigim@gmail.com

필자는 『한글새소식』 머리글에 조선어학회 수난을 이기고 돌아가신 날까지 한글을 사랑한 무돌 김선기 선생(1907~1992)이 힘쓰신 한글 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돌 선생은 연희 전문 스승이신 외솔 최현배의 추천으로 1931년 1월(23세)에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무돌은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젊은 학자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1933) 2차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위원으로 언어학 전공자로서 연세가 높으신 스승님들을 모시고 원고 편집 및 편집회의 기록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 무돌 선생은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영국 런던대학원에서 저명한 언어학자 다니엘 존스(Daniel Jones)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41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1942년 10월 21일 함경도 흥원 경찰서와 함흥 감옥에 수감되었다. 1943년 9월 18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일제는 무돌 선생의 교수직을 빼앗고, 함북 아오지 탄광에서 석탄을 캐게 하는 일을 시켰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연세대학교에 복직되었다.

무돌 선생은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

안」은 우리 민족 문화의 결정체이며 왜정 35년 동안 우리 민족이 광복을 대비해 놓은 업적으로 평가했다. 무돌의 제자 성백인 교수는 “1945년 미군정 시기에 한글이 ‘맞춤법 통일안’(1933)이 없었다면 한글은 미개한 언어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독립을 준비한 애국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평가하셨다.

무돌 선생은 주시경·최현배·이극로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을 한글 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무돌 선생이 1931년 지으신 최초의 논문 「우리말 순화론」(1931)에서 “말은 민족의 생명이며, 제 나라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우리 말을 살려 쓰자.”고 주장했다. 1931년 10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무돌 선생은 “한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토박이말 두루쓰기를 주장하여, “소리날(음소), 달소리(자음), 열소리(모음), 맺음말(결론)” 등의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셨다.

1956년 무돌 선생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재임 시절 언어학 발전을 위해 ‘한국 언어학회’를 창립하였다. 그 이후에 학계를 떠나 무돌 선생은 1957년~1960년에 문교부 차관을 역임할 당시, 한문으로 쓰였던 국가 공문과 서울 거리에 붙어 있던 한자 간판을 한글로 바꾸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했다. 무돌 선생은 후일 한글 전용 정책을 공론화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회상하셨다. 무돌 선생이 문교부 차관직에 있으면서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하고,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제정한 것은 주시경·이극로·최현배·김윤경 등의 학자가 주장한 한글 전용을 실천하고, 나아가서 로마자화를 통해 한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무돌 선생은 1948년 문교부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정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ㄱ, ㄴ, ㅂ, ㅅ’를 ‘k, t, p, ch(크, 트, 프, 츠)’로 발음하는 미국식 로마자 표시법에 반대하였다.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1948)에서 예를 들면, 성(姓)인 김(Gim)을 김(Kim)으로 쓰는 것은 한글 소리를 제대로 발음하지 않는 표기라며 옳지 않다고 보았다.

1983년에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매쿤 라이샤워(MaCune-Reischauer)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무돌 선생은 “문교부가 1959년에 제정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매쿤 라이샤워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길을 두고 피로 가는 것”이라고 통탄하였다. 그러나, 컴퓨터가 일상화되자 실용성이 없는 매쿤 라이샤워 방식은 더 이상 활용성이 없다고 판명되어, 2000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다시 고시됨으로써 늦게나마 문교부가 1959년에 제정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되돌리게 되었다.

무돌 선생은 한글 전용의 의의는 민족의 독립정신, 민주정신, 과학정신의 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글만 쓰는 데 할 일』(1970) 1965년에 펴낸 『문자 정책론』(1965)에서 한글 전용은 한글 창제 못지않게 커다란 뜻을 품고 있다. 한글을 전용하게 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노년층과 소년층을 가로막고 있

는 문화생활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설파했다.

1970년대에 어린 딸인 필자와의 대화에서, “한국에서 한글 전용이 실현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0대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였다. 5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은 바로 실현되었다. 1960~70년대만 해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의 기사에는 국한문을 혼용하여 대학생들도 사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었다. 나는 한글 전용을 하면 고대 시가를 후세대에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해 나는 아버님에게 여쭙보았다. 아버님은 아녀자나 일반인은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쓸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기에 사람들이 모두 한자를 배우는 것은 배우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셨다. 다만 지식인 가운데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한자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글 전용을 주장했던 무돌 선생은 다른 학자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도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셨다.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로 거듭나게 기틀을 마련해 주신 한헌샘 주시경 선생과 그를 따른 최현배·이극로·김윤경·이윤재·정인승 선생 등 한글맞춤법을 제정하신 한글 학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후학들을 길러내셨다. 무돌 선생의 제자들은 서울대학교 허웅·김방한·이현복·성백인 교수와 2세대 교수로 한글학회 이사장 권재일 교수와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교수 등이 있다.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의 손호민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언어전공 박사학위를 길러내는 세계에서 저명한 학자이다. 무돌 선생은 한평생 한글을 연구하고 후학들에게 한글 사랑을 가르치신 큰 스승이시다. 

우리 외할아버지, 서승효님



이혜연

서승효 선생 외손녀

충남 청양 출생. 보성전문, 일본 와세다 대학, 상해 임시정부 활동,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 감옥에 투옥, 귀국 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 여러 신문의 창간 및 기자생활, 그리고 독립 유공자.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참으로 근엄하시고 큰 산처럼 근접하기 어려운 분같이 느껴진다. 책에 실린 사진을 보면 잘생기신 외관에 꼭 다문 입술, 강한 눈빛이 더욱 더 그리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들의 할아버지는 너무나 자애로우시고 평생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으신 따스한 분이셨다.

젊은 시절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온몸을 바치셨다. 그리고 맞이한 감격의 8·15광복 그날,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펄펄 쏟으셨다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다. 벽찬 해방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우리나라는 좌우로 갈라져 혼란스러웠고 동족상잔의 비극 6·25사변이 터졌다. 풍비박산이 난 나라와 각 가정들... 우리집이라고 피해갈 수 있었겠는가.

6·25사변이 터지기 전에 청양으로 내려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결과적으로 그곳이 우리 가족들의 긴 10년 간의 피난처가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남북으로 이산가족이 되어 살아 돌아온 큰딸과 손자 세 명을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해 주셨다고 한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과 손주들이 살아왔으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새 생명을 얻은 듯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다고 한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다. 할머니께서는 손발이 닳게 농사를 지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시고 닭, 오리까지 키워서 우리들을 살뜰히 해 먹이셨다. 덕분에 어린 우리들은 전쟁과는 머나먼 깊은 산골에서




▲ 연아 서승효 선생 (1882. 9. 22. ~ 1964. 9. 11.)

평화롭고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나 젊어서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아이 셋 딸린 젊은 큰 딸을 보며 두 어른은 얼마나 깊은 시름에 밤마다 잠을 설치셨을까. 세월을 잘못 만난 부모의 숙명인가 한다.

그 후, 서울에 올라와서도 두 어른은 꼭 우리와 함께 사셨다. 서울로 오신 후 말년을 지내시는 동안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종로 단골 다방에 나가셨다. 그곳에서 옛날 동지분들을 만나 좋아하시는 담배와 커피를 드시면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셨다. 평생 청빈하셨던 옥골 선비 할아버지는 늘 가난하셨다. 엄마가 챙겨주신 커피값을 들고가면 담배연기 자욱한 킁킁한 다방에서 친구분들과 활짝 웃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어제인듯 선하다.

나는 60년 전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외치며 방으로 들어가니 할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누워계셨다. 직장에서 혈레벌떡 뛰어오신 엄마와 할머니께서 걱정스런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말을 잃은 할아버지는 입술만 조금씩 움직일 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우리들은 한 사람씩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두 눈을 맞추고 무언의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영영 이별하였다. 지금도 우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만 나와도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무한한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이 쌓여서일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끼었던 제가 할머니가 된 지금도 많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덧붙여 목숨바쳐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지켜주

신 조선어학회 모든 우국지사분들께 엮드려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 서승호 선생이 제74주년 광복절(2019. 8. 15.)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날 외손들과 외손부들의 모습. 왼쪽부터 성죽순·최순옥(외손부), 이해연·이혜경·박진영(외손녀), 박돈화(외손자).

원고를 내어 주십시오

우리 말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나라 안팎의 모든 이들이, 우리 말글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실을 수 있습니다.

1. 원고는 한글만으로 쓰되, 원말을 꼭 보여야 할 때는 한글로 적은 다음, () 속에다 덧붙일 수 있습니다.
2.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4~15장을 써 주시고, 반드시 연락처와 주소, 직업을 적어 주십시오.
3. 원고는 컴퓨터 파일(한글2010 권장)로 만들어 누리편지(saesosik@hangeul or kr)로 보내 주십시오.

흥내말(의태어, 의성어)에서는 표준어와 방언 경계를 없애자



임규홍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t01036567067@gmail.com

흔히 우리말의 특징으로 의태어와 의성어가 많고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어가 풍부하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소리를 본뜨고 꼴을 본뜬 이른바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감각에 민감하고 그것을 표현할 낱말이 많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좋고 나쁜 언어는 없다고들 하나 언어마다 특징은 있게 마련이다. 민족과 역사, 문화, 삶이 다른 만큼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말은 섬세한 감각어가 많은 데다가 소리나 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 한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이 다른 언어보다 상징어들이 잘 가꾸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지방에 있는 방언 상징어들도 무수히 많다.

간혹 시에 부러 쓰는 토박이 의성어나 의태어 한 낱말로 시를 아름답고 감동을 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오는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의 ‘즈려’는 지긋이 밟는 모습으로 함경도 방언이다. 표준어는 ‘지르밟다’로 돼 있다. 한국 최고의 시에 쓰인 시어가 비표준어로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르밟다’나 ‘즈려밟다’나 모두 아름다운 우리말로 복수표준

어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정지용의 시 「향수」 첫머리에 나오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의 ‘지출대다’라는 의성어는 ‘재잘대다’의 충청방언이다. 토속적인 고향의 맛을 한층 더 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나오는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또 그의 시 「바다」에는 “그리고 지중 지중 물가를 거닐면/-줄임-고기비늘에 하이얀 햇별만 쇠리쇠리하야”에서의 ‘응앙응앙, 지중지중, 쇠리쇠리’ 등의 상징어는 모두 비표준어인 방언이다. 그러나 이런 시어들은 시인의 독창적인 시어로 시의 맛을 더 잘 살려준다. 제주방언에 옷이 짝 껴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뽀짝하다’란 말이나 걸음걸이가 경쾌함을 나타낸 강원 방언 ‘강실강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더구나 지역에 따라 오랫동안 써 온 아름다운 고유한 방언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가치롭고 소중한 말 보물이다. 말씨를 말밭에 많이 심어 아름다운 말꽃을 피우도록 해야 한다.


소쉬르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언어가 소리와 뜻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른바 언어의

자의성을 믿고 있다. 소쉬르는 의태어나 의성어와 감탄사까지도 자의적이라고 했다. 나랏말마다 다른 상징어가 존재한다는 것과 상징어가 언어 가운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자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개별 언어의 만들도 그 까닭이 있다. 단지 모를 뿐이다. 우연성과 필연성은 정도의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낱말은 필연성이 높은 것도 있고 어떤 낱말은 필연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의성어와 의태어는 대상의 소리나 꼴을 본뜬 필연성이 매우 높은 낱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은, 특히 상징어가 조금씩 다른 것은 언어구조나 민족, 생각과 문화, 발생기관의 진화 등의 다름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다. 나랏말의 상징어들이 비슷한 것만 보더라도 소리의 속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필연성이 높은 말임을 알 수 있다.

상징어는 문법적인 뜻넓이로 볼 수 없는 말무리다. 따라서 상징어를 모음과 자음의 교체가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따질 말이 아니다. 모음조화와 자음의 교체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 모음이나 자음의 미묘한 소리로 만들어지는 소리나 꼴 상징어들은 자유롭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상징어는 엄격하게 규범화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표준어 규정 제1부, 제2장, 제2절 모음, 제8항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한 규정은 문법적으로 모음조화가 깨뜨려지는 언어현상을 넓게 받아들이는 규정이다.

표준어가 개정되면서 ‘오손도손’은 틀린 말이고 ‘오순도순’만 표준어로 삼았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둘 다 표준어로 삼고 있다. 지금도 ‘깡충깡충’은 비표준어고 ‘깡중깡중’만 표준어로 삼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둘 다 표준어로 삼아야 한다. 잘 쓰지 않는 ‘강중강중’, ‘깡중깡중’은 표준어라 하고 ‘깡충깡충’의 작은말인 ‘깡충깡충’을 비표준어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가 오펍이 솟았다’의 ‘오펍이’는 되고 ‘오펍이’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우펍’도 되고 ‘오펍’도 되며 ‘오펍’도 되는 것이다. ‘오펍이’보다 작은말이 ‘오펍이’다. ‘여인의 작은 코가 오펍하여 예뻐다’가 ‘오펍하여 예뻐다’보다 더 사실적이고 말맛이 더 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람마다 모두 대상에 대한 소리와 꼴을 보는 생각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아름다운 상징어들이야말로 표준어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품격있고 아름다운 우리 말글을 온 누리에



정한성

목포대 진학협력관
jhs889989@hanmail.net

아침에 출근하면서 벽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한 장을 보았습니다. 국립목포대의 인권센터에서 제작한 벽보인데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협오가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은 당신입니다. 타인을 향한 혐오는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뱉는 혐오는 남과 나를 망가뜨리기에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흔히들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혐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혐오는 비난과 야유와 욕설과 고함과 거짓말을 동반합니다. 상대를 적대시하고 막말을 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게 합니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암담하고 서글픈 현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혐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과 글이라 생각됩니다. 혐오를 부추기는 말과 글은 개인 간은 물론 집단이나 진영을 극단적으로 양분시키기도 합니다. 상대를 부정하고 심하게 대립하니 공존을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특히 감정이 담긴 혐오의 말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황폐화시킵니다. 가는 말이 거치니 오는 말도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품격있는 말이나 감동을 주는 멋진 말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벽보를 보고 있으니 문득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입에서 나온 말은 산 넘어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번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말에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그냥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들어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친구가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을 다시 전하면서 그때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몹시 서운하고 화가 치밀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말이든 무심코 한 말이든 농담 삼아 한 말이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새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뱉었던 말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아 돌아왔고, 그로 인한 미안함과 괴로움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던 기

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거듭 말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 산 자를 땅에 묻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 나가야 하는 말과 글은 어떠한가 하는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서로를 헐뜯고 망가지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부추겨주는 언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협오의 언어가 아닌 사랑과 이해의 언어가 꽃처럼 피어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아름다운 시어가 있는 동시와 동요를 자주 접하게 하고 부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바르고 고운 말과 글을 가르치고 언어예절도 심도있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명시 100편을 외워서 낭송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토의·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아름답고 품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 매체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등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품격있는 태도와 언어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의 회의 장면이나 오가는 말들을 들으면서 초등학교생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말과 행동을 어린이들도 보고 배운다고 생각한다면 언어를 보다 정제하고 품격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언어교육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말투나 어휘나 태도 등이 부모님과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가정에서 올바른 언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한다면 더 품격있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화단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려면 많은 잡초들을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혐오와 증오와 질투의 잡초들을 제거하고, 이해와 사랑과 친절의 품격있는 꽃들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사랑이 담겨있는 친절하고 품격있는 언어들이 서로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어 메아리처럼 멀리까지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아름답고 품격있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올림픽 체조 3관왕에 오른 시몬 바일스라는 선수의 옷깃에 '누구든, 모두가'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말글이 세계의 언어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우리 말을 더욱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꾸고 온 세상에 아름답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쉬운 금융용어 사용, 금융 문턱을 낮추는 지름길이다



서은아

상명대 교수
daye4994@smu.ac.kr

예나 지금이나 금융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 문턱을 낮추겠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고 여기는 까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니다. 금융 상품 설명서와 약관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부할, 추상, 부분, 반흔, 계호, 유합’ 등의 금융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5점을 기록했으나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42.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금융 이해력이 계층 간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런데 마침, 올해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케이비(KB) 금융이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일에 앞장섰다고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차주’를 ‘빌린 사람’으로, ‘저리’를 ‘낮은 금리’로, ‘분할상환’을 ‘나눠갚기’로, ‘대위변제금액’을 ‘대신 갚은 금액’으로 풀어 쓰기로 했고, 케이비 금융은 ‘거치기간’을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연금 개시 도래일’을 ‘연금받기 시작하

는 날’로, ‘초일불산입’을 ‘첫째 날 제외’로 바꿔 쓰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이러한 시도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7%가 ‘금융 상품 설명서와 약관’의 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70.5%는 금융 상품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알기 쉬운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꼽았다고 하니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금융 소비자 10명 중 8명이 금융용어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더 일찍 서둘러야 할 일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올해 들어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2013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이 291개의 금융용어 순화어를 발표한 바 있다. 비록 순화어의 양이 많지 않고, 발표 주기도 길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기에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2년에 발표한 ‘가망고객, 권원보험, 대주’ 등은 순화어 ‘기대고객, 부동산 권리보험, 대출꾼’ 등에 비해, 2003년에 발표한 ‘상지, 신용공여, 업황’ 등은 순화어 ‘팔과 손, 신용제공, 사업현황’ 등에 비해 사용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하기 쉬운 금융용어를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어떻게 해야 공공언어를 보다 더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쓸 수 있는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일이다. 순화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현실은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공공기관도 순화어를 발표함으로써 국어 순화에 참여하는 의지를 보여주기에 앞서 이미 만들어진 순화어를 잘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금융상품 표준약관’ 58건을 대상으로 금융용어 순화어 사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부할(84회), 추상(49회), 부분(16회), 반흔(14회), 개호(10회), 유합(10회) 등의 사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할’은 ‘효력회복’으로, ‘추상’은 ‘심한 흥터’로, ‘부분’은 ‘부분(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으로, ‘반흔’은 ‘흥터’로, ‘개호’는 ‘간병’으로, ‘유합’은 ‘아물어 붙음’으로 바꿔 쓰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21년 6월에 「국어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특수법인들까지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평가받게 된 데다가 기관별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와 외국어, 한자어 순화어를 발표하는 일이 점차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순화어를 발표하는 일보다 순화어를 관리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기 바란다.

해방 이후 ‘우리말 도로 찾기’로 시작된 국어 순화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와 외래어, 일본식 한자어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쭉쭉 자라는 잡초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이라고 할까?

얼마나 더 설득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공공언어를 보다 더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쓸 수 있는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일이다. 순화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현실은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공공기관도 순화어를 발표함으로써 국어 순화에 참여하는 의지를 보여주기에 앞서 이미 만들어진 순화어를 잘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미술가 강익중의 한글 작품 <내가 아는 것>



강익중

미술가
ikjoongkang@gmail.com

배경

미술가 강익중의 한글 작품은 일상에서 찾은 작은 지혜를 노트에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모은 글들을 작가의 대표작인 3인치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작가는 한글의 특징이 다른 나라의 글자들은 뜻 글자이거나 자음 또는 모음만으로도 글자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한글은 꼭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야 하지만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들었다. 음과 양이 합쳐져야지만 완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글의 매력은 단순함과 배우기 쉬운 점에 있다. 다른 나라 글을 아는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도 약 10분이면 한글을 깨우칠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은 쉽게 만들어졌고, 세상에 어느 나라 글자보다도 예술성에 있어서 예술로 승화시키기도 좋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글은 응용이 매우 쉬운 글자여서 약간의 개량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기 어려운 'F, L, R, Th, Z'를 표현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작가가 한글과 더불어 사랑하는 소재는 백자 달

항아리이다. 작가는 현대화가로서는 최초로 서양화의 소재로 달항아리를 주로 사용했는데, 달항아리 역시 어우러짐을 뜻한다. 달항아리는 제작시 아랫면의 반과 윗면의 반을 따로 만든 후 최종 단계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합쳐서 만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항아리는 만들 수 없다고 한다. 달항아리와 한글 모두 화합과 조화, 그리고 함께해야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조상들이 알고 그것을 실천해 온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작가의 한글 작품에 담고 있다.

작가는 한글의 매력에 깊숙이 빠져, 수많은 한글 작품을 국내는 물론, 뉴욕, 로스앤젤레스,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 전시하였고 올해에는 이집트 카이로와 뉴욕에서의 새로운 대형 한글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그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한글의 세계화에 조금이나마 자신이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작품 소개

작가에게 <내가 아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막 결혼했을 무렵 미술가 사위가 미덥지 않으셨던 장모님은 “자네는 도대체 아는 게 뭐가?”라며 물으셨

을 때 조금 상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부터 자신이 아는 것을 공책에 적기 시작했다. “그래 이건 알아, 어릴 적 이태원 언덕에서 본 폭풍 직전의 하늘은... 연한 청록색이다.” 그러면서 적기 시작한 것이 <내가 아는 것>이라는 작품을 낳게 되었다.

지하철에서 나와 방향을 모를 때 맞는다고 생각하는 쪽의 반대로 가면 된다. 가장 좋은 냄새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방금 산 책받침 냄새다. 어릴 적 들은

이번에 청주 시립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내가 아는 것>은 13.85×10.3미터 벽면 2면과 20.9×10.3미터 벽면 2면으로 구성된 과거 한국방송공사(KBS) 공개홀로 사용되던 전시실에 바닥면을 포함하여 약 3800여 글자 250여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글 작품이다. 가로 세로 50센티미터 정사각형 도안의 한글 작품은 공판화 기법으로 벽면에 직접 새겨진 세계 최대의 판화 작품인 것으로 생각된다.



▲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내가 아는 것> 작품 전시 준비하고 있는 모습.

칭찬은 오래 기억된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 앞에서 뛰면 안 된다.’, ‘무대공포증은 나보다 더 큰 나를 보여주려고 할 때 생긴다.’, ‘비행기에서는 방귀 소리가 안 들린다.’ 등 지난 40여 년 동안 작가의 인생 기차를 타고 오며, 오르고 내린 많은 사람들과의 삶과 창밖을 지나쳐 간 세상을 바라보며 느꼈던 지혜를 가장 아름다운 우리 글로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의 의의

세계적 작가 강익중이 처음으로 작가의 고향 청주에서 작가의 데뷔 4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이번 전시회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소개한 이 작품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곳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했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

내가 바라는 한글 혁명



김숙희

국학진흥원 소속 이야기할머니
greenkids215@naver.com

세종대왕이 바라던 한글 혁명은 그 옛날 15세기 세종대왕께서 집권하던 시대에 일어났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자기 뜻을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고, 한자를 몰라 당하는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다. 드디어 한글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혁명이라고 하기엔 한글 사용이 너무도 미미했다. 이른바 글 좀 읽었다는 선비님들께서 한글을 무시하고 여전히 한자 권력을 휘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현재 21세기에도 여전히 있다. 단지 한자에서 로마자 등 영향력 있는 나라의 글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한글은 참으로 좋은 글자이다. 세계 모든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 음악 시간에 슈베르트 가곡을 독일어로 노래 부르는 시험을 쳤다. 음악 선생님이 독일 유학과 성악가였기 때문이다.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는데 독일어 가사가 많이 부담되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같은 반 친구가 성악 전공 대학생 언니에게 독일어 가사를 한글로 적어 와서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유창한 독일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운 추억이다. 그때 그 가곡은 지금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흥얼거리게 되는 즐거운 추억이다. 그러나 외국어를 한글로 쓴 것에 대한 유쾌한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글날이 되면 꼭 오르

는 뉴스 중 하나가 영어 남용에 대한 보도이다. 웹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리자 소매치기 당한 걸 알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신고라도 할 모양새로 “경찰 어디 있노”라고 하며 허둥지둥하였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옆에는 버젓이 ‘폴리스’라고 쓰여있는 경찰차가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 세종대왕도 울고 가실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 아닌가?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그중에서도 요즈음 나에게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는 건강 검진 결과지를 해독하는 것이다.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보고 싶지가 않다. 작은 글씨에 빼곡히 쓰여 있는 로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다고 하긴 했는데 내 눈으로 확인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밖에 뉴스를 들어도 책을 봐도 새로운 개념어는 모두 외국어다.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해도 모든 국민이 그 개념어를 모두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요즈음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인터넷으로 찾아본다. 그 단어가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모르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외국어 개념어를 한글로 바꿔야 하는 건지, 내가 그때 그때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방송 매체가 친절하게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 줘야 하는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한글 혁명이다. 

선생님 가방은 요술 보따리



최유미

리옹 한글학교 교장
yumi73819@gmail.com

2003년 리옹 한글학교에서 처음 교사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할 때 한글학교 학생은 총 12명이었다. 성인반 학생 6명, 아동반 6명이 전부였고 성인과 아동으로만 구분했을 뿐 성인반에는 첫째부터 3년 이상 다닌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아동반은 4세부터 8세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 물론 교사인 나조차도 열정만 있을 뿐 교육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교재도 없고 인력도 없고 프랑스 리옹은 유럽 선진 도시였지만 한글학교 교육은 제3국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글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사인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교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렸다는 신념으로 내가 먼저 수준 있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기본인 학습계획표를 짜서 수업 계획을 세웠고, 교육 관련 서적을 공부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았고 지금처럼 쉽게 인터넷에 공유된 지식을 참고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책을 살 수 있는 것도, 가르쳐줄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교육학에 대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부딪혀서 깨닫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수업 준비를 하는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한글학회에서 주관한 ‘한글학교 교사연수’

에 초청 교사로서 연수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 연수는 간헐적으로나마 무지한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공급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어 교사로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이다. 한글학회 연수는 다른 기관의 3~4일 세미나식 연수가 아니었다. 집중 교육 자체였다. 2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 교육자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았다. 이후 2009년 한국어 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연수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기회는 나의 목마른 갈증에 생명수 같은 것이었다. 나의 교육 목표는 아이들이 한글학교 수업을 좋아해야 한다는 단순한 목표로 시작했다.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좋아해야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한글학교에 오기 싫다며 떼쓰는 아이들을 설득과 협박을 번갈아 하면서 한글학교에 보내는 한국 어머니들의 기대도 충족시켜야 해서 나름 고충이 심했다. 한국 학부모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부담이지만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보낸 학교에서 효과가 없다면 굳이 힘들게 한글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선생님에게도 학습 준비, 학습의 효과, 학교에 대한 희생 등 교사의 역량을 기대하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초

창기 한글학교는 보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역량과 노력의 대가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학부모님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아동반 수업을 선호하는 교사는 없었다. 봉사과 경험을 하고 싶어 도전했던 선생님들은 시작과 동시에 자신과 약속한 시간만큼만 버텼다. 1년을 넘기면 고마운 일이었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에서 시작한 동포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었기에 잘하고 싶었다. 내가 그 한계를 넘고 싶었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고 시작했다. 교재도 자재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한 번 있는 2~3시간 수업을 위해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 재미도 있고 효과도 있는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 아이들과 다르게 한글학교 아이들은 환경 때문인지 동요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신나게 동요를 부를 수 있도록 우쿨렐레를 배워서 아이들 반주도 직접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우쿨렐레 반주에 동요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아이들은 한글학교에 오면 선생님 보파리가 궁금해서 하나 둘 모였다. 알록달록한 종이 뭉치들을 좋아했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커다란 주사위도 재미있어 했다. 커다란 주사위를 돌리며 숫자도 공부도하고 동물, 물건, 과일, 야채 이름 익히기 위한 보드 게임도 즐겼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직접 만들었다. '유미 선생님 수업 재미있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학부모님들은 수업때마다 큰 가방 두 개씩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수업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파리 장수 같아요.'라며 애정 섞인 농담도 하셨다. 학부모와 동료들은 양손 가득 두 보파리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을 '유미 선생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는 없어도 교구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교육 철학이었고 그렇다 보니 수

업 갈 때마다 짐이 항상 많았다. 우쿨렐레, 커다란 상자 주사위, 장갑인형, 주제에 맞는 동화책, 두꺼운 보드 게임판 여러 장, 색도화지, 색종이 등 아이들은 선생님이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하실까 호기심 가득한 눈을 반짝거리며 큰 쇼핑 가방 주변으로 조그만 머리를 서로 서로 맞대고 혹시 혼날까 소심하게 작은 손을 뻗어 만져보며, 오늘 수업에 내용에 대해 추측도 하며, 선생님이 빨리 수업을 시작해서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은 나의 목소리와 몸짓에 집중했다. 내가 움직이는 동선과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아이들의 눈빛과 머리가 따라 움직였다. 우연히 이 모습을 본 동료 선생님이 신기해 하기도 했다. 내가 쏟은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봤다.

프랑스 학교보다 한글학교가 재미있다는 말과 각이 없는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한글학교 가는 날이야?', 프랑스 학교 가는 날이야?'라고 엄마에게 물어본다는 것이다. 프랑스학교 간다는 말에 실망하며 왜 맨날 프랑스 학교만 가냐며 투덜된다는 말을 전해주는 학부모의 말에 서로가 감사해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감사해했고 학부모는 교사에게 감사해했다. 그렇게 해마다 수업은 진화했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신뢰도 쌓여갔다. 지금은 유아반 2개와 초등반 5개를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학교로 성장게 된 것도 그 과정에 성실했기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토요일 3시간 수업을 위해 나는 일주일 내내 교구를 만들고 수업자료를 편집하면서 보낸다. '선생님은 요술 가방을 들고 다녀요'라고 해주는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든다고 하여 '유미 선생님 매직'이라

〈18쪽으로 이어집니다〉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는 한류의 기본

최흥길

서울 선정고 교사
jaeundo111@naver.com



자은도(慈恩島)라는 섬이 고향인 필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섬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문화 등을 익히려 노력한다. 그리고 해외로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 나라에 섬이 있는지를 우선 파악한 뒤에 중요한 일을 마치면 섬으로 간다.

최근에는 도쿄에 사는 지인이 요코하마 아래의 미우라 반도와 조가시마(城ヶ島)를 추천해 주었다. 다리가 연결되었기에 버스를 타고 섬까지 갈 수 있다는 정보였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말, 요코하마에서 티켓을 구입해 전철에 몸을 실었다. 세 장의 표 가운데에는 점심 식권과 수중관광선 체험도 포함되어 있었다.

승선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건물 2층의 카페와 마트에 들렀다. 마트에 온 손님들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우리집’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흥겨운 마음으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1시간 정도의 승선 체험 후에는 배가 출출해서 인근의 도넛 가게를 찾았다. 지인과 한국어로 소통하자, 가게의 젊은 직원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살갑게 다가왔다.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어도 공부한 내용을 구사해 보려고 애썼다. ‘케이팝’을 통해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쿄의 신오쿠보는 ‘일본 속의 작은 한국’으로 통

한다. 이곳은 신주쿠와 인접해 있기에 20~30대 젊은이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젊은이들의 발걸음으로 인산인해였다. 이들은 배가 출출하면 한식을 찾았고, 이후에는 카페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곳곳에 자리한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다.

지인의 소개로 한국어 초급 교실 청강생으로 들어갔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반부터 80분 동안 진행되는데 수강자는 6명이었다. 5명은 30대, 1명은 50대였다. 수업 제목은 ‘격음화’였다. 학생들은 교재와 연습장을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강사는 칠판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일본어를 곁들여 가며 설명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어서 따라 읽게 하고, 연습장에 적게 했다. 마무리 시간에는 간단하게 과제도 제시했다.

수업이 끝난 직후 양해를 구하고서 강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에 들어갔다. 설문은 단답형이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는 4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는 ‘케이팝’(K-pop)과 ‘케이드라마’(K-drama) 때문이었으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발음이라고 한결같이 답했다. ‘수업 후에는 집에서 교과서를 보고 복습한다.’ ‘일본방송협회(NHK)의 한국어 강좌를 듣는다.’ ‘누리소통망(유튜브)으로 한국 드라마

외국어 범벅 금융용어, 외계어 아닌가요?



이지아


한글문화연대 11기 대학생 기자단
jackie1008@naver.com

‘신한얼리버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시중의 어느 펀드 이름이다. 일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설명 하는 것은 어려울 법하다.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따르자면 맨 앞의 ‘신한’은 펀드 운용사이다. ‘얼리버드’라는 영어 표현은 ‘일찍 시작한다’는 의미로 초기 투자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음을 암시한다. ‘증권투자신탁[주식]’은 투자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의미이고, ‘종류A’는 펀드의 특정 유형을 의미하며 ‘e’는 투자자가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열다’라는 간단한 뜻을 ‘개비(開扉)’라는 한자어로,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DSR’이라는 영어 줄임말로 표현하는 등의 의미를 쉽게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들이 많다.

생소한 외국어와 한자어로 가득한 금융용어들은 한글로 표기되어 읽지 못하는 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2021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소비자의 권익 강화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금융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와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금융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리밸런싱, TDF’ 등의 외당지 않는 외국어와 보험대위, 일상배상책임 등의 한자어가 난무하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금융감독원에서

도 설명에 사용하는 ‘펀드’라는 말 자체도 외국어이다.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에 근무 중인 박 모 씨(28)에 따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인해 연금 수령을 강조하는 바람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보험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다고 한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단어만 보고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며, 설명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약관과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는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 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용어를 비롯한 공공용어를 새로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듬어진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이 금융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어려운 금융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도움을 통해 소비자들의 더 나은 금융생활을 위한 공공기관에서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아욱꽃(무궁화)과 붉은 배롱나무꽃(백일홍)과 함께

—삼가 이 씨 오덕 큰 스승님 고이 잠드신지 21돌('24. 8. 25) 날에 즈음하여




한밭 김리박

시인, 한글학회 일본 간사이 명예지회장
ribak@hera.eonet.ne.jp

요 앞 몇 해부터 그날이 오면
거룩한 이 씨 오덕 스승님의
자그마한 찍그림을 모신 내 사랑방에
한 쌍의 촛불을 켜고 고운 향을 피워
유리잔에 맑은 술을 부어 드려
큰절을 올린다.

지난 해 그날
아드님 정우 스승님이 마련하신 무덤을 처음으
로 찾아
큰절을 올려
새삼 뒤늦게야 이제야 찾아 뵈온 죄를 머리 속에
빌었다.

넓은 배움집 마당 안에는
참아욱꽃이랑 붉은 배롱나무꽃 몇 나무가 피고
소나무가 둘러 심어지고
잔디들이 곱게 자란 무덤 자리가
맑고 깔끔했다.

내 나이 여든 두 살, 옹근 늙은이건만
총칼에 눌러 끌려 간 지아비 좇아
민고장 돌메(昌原石山) 고을을 떠날
어머니 등에 업혀 닛본(일본)살이 일흔 여덟 해,
아는 것 없고 배운 것 모자라 부끄럽기는 하나,
우리 한겨레들과 뒷한겨레들에게
바른 겨레 열과 나라사랑,
올바른 우리 말과 한글과 말본을 잡아 주시려고
온 삶을 바치시었고,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푸름이들이
마음없이 없이, 몸 아픔 없이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나
나라 주춧돌, 기둥감 되거라 아끼고 아껴 키
우신,
이 씨 오덕 큰 스승님 허락 없이 스스로 일컫는
배울 이임을
저승 가도 자랑으로 여기는 돌 없는 복탄 사람이
외다. 

한글학회 창립 116돌 기념 잔치



▲ 봉원사 표지석 앞에서 한글학회 창립 116돌을 기념하는 모습.

우리 학회는 8월 31일(토) 오전 11시, 창립 116돌을 맞아 한글학회 창립터인 새절(봉원사)에서 창립 기념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묵념을 시작으로 우리 학회 김주원 회장의 기념 말씀에 이어 주요 단체장들과 함께 꽃을 바쳤다. 또한, 봉원사(주지: 현성 스님) 여진 스님을 비롯하여 조선문학회 오동춘 회장과 설성경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축하 말씀을 베푼 뒤, 참석한 이들이 한데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어 관련 기관 및 단체장들과 학회의 임직원(국립국어원 정희원 어문연구실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최홍식 회장,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차재경 회장, 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 외솔회 이창덕 회장,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 대표, 조선어학회선열유족회 김보희 운영위원, 이정택 부회장, 이관규 출판부 이사 등) 들이 참석하였다.

광화문 한글 현판 1인 시위



▲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주원 회장의 모습.

우리 학회(회장: 김주원)는 8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광복절 주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우리 학회 김주원 회장을 시작으로 권재일 재단 이사장,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 대표,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차재경 회장을 비롯하여 우리 학회 김슬옹·홍현보 회원과 직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번 1인 시위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한글 현판 팻말을 들고, 오고 가는 시민

들과 관광객들에게 밝힘글을 나눠주며 우리의 주장을 널리 알렸다.

들과 관광객들에게 밝힘글을 나눠주며 우리의 주장을 널리 알렸다.

2024년 두 번째 재단 이사회



▲ 2024년 두 번째 재단 이사회회의 모습.

재단법인 한글학회(이사장: 권재일)는 8월 6일(화) 오후 5시,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보고 △회관 정비·보수 공사의 일 △장기 미수금 처리의 일 △한글학회 활동 현황 보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장기 미수금 처리는 2016년에 (주)넷피아(아이비아이, 콤피아 계열사 포함)가 미납한 임대료 3천만 원과 입주 사무실에 설치했던 시스템 냉난방기(9대)를 상계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권재일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정·김대중·정시영·이오영 이사와 이종수·정동환 감사가 참석하였다.

『큰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 『큰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회의 모습.

우리 학회(회장: 김주원)는 8월 6일(화)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큰사전 원고』 세계기록유산 등재준비위원회 네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글 등재 신청서를 2025년 2월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청서 내용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피어 반영하고 초안 집필의 책임은 이관규 위원이 맡아 8월 말까지 1차 초안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학회 김주원 회장과 김한빛나리 국장, 이관규(고려대 교수), 이혜은(숙명여대 교수), 유철인(제주대 명예교수), 남길임(연세대 교수), 도원영(고려대 연구교수), 이병규(동학동민혁명기념재단 부장) 위원이 참석하였다.

기증 소식



♣ 7월 28일(일),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세종대왕 조각상을 제작하여 학회에 기증하였다.



♣ 8월 5일(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살고 있는 강정애 님이 지난 '주시경 선생 110주기 추모 답사'(7월 27일)에 참여하여 간직하고 있던 책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서울 강서구에 사는 동생(강호성)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번에 기증한 책은 『성씨자료집 상·하』(1994, 한국전통문화연구소 편, 화산당), 『국민보감』(1961, 이종수 편, 신화문화사), 『한국의 전통예절』(1993, 전통예절편찬회 편, 삼성) 4권이다.



♣ 8월 5일(월), 편저자인 강석찬 목사가 한글학회와 인연이 있었던 할아버지 강병주 목사(『큰사전』 편찬 작업 때 전문어 풀이에 도움을 준 기독교 분야 위원으로 참여)의 평전 『백남 강병주 목사의 행적을 찾아서』(2024. 8. 9. 세움북스) 1권을 기증하였다.

헬버트 박사 75주기 추모대회

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

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김동진)는 8월 30일(금) 오전



▲ 헬버트 박사 75주기 추모대회의 한 모습.

11시,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내 백주년기념교회 선교기념관에서 헬버트 박사 75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은 정용호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동진 회장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추모사 대독),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 로버트 포스트 주한미국대사관공보공사참사관,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모사를 베풀었다. 이날 추모대회에 여러 기관과 단체 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학회에서는 김주원 회장과 김한빛나리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헬버트 박사 후손(Burce)이 기증한 서적 3권과 왕실 장례 사진첩을 공개하였다.

이 유품들은 헬버트의 셋째 아들(Leonard)가 소장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전수했고, 헬버트 75주기를 맞아 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에 미국 지부를 통해 기증한 것이다.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문화체육관광부·세종학당재단



▲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혜영)은 8월 6일(화)부터 9일(금)까지 나흘 동안 서울신라

호텔에서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 세계 46개 나라 92곳 세종학당 교원 173명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교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16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세종학당 교원과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을 초청하여 최신 교수법 등을 제공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원 및 세종학당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활동하는 바이마간베토바 딜바르 님이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네팔 카트만두·독일 베를린·인도 벵갈루루 세종학당 등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 16곳이 지정서를, 2023년 우수 학당으로 뽑힌 대만 타이난·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콜롬비아 보고타 세종학당 3곳이 공로패를 받았다.

광복 79주년 기념 특별 해설

〈함께 지켜낸 글, 한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일환)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지난 8월 한 달 동안 기념 특별 해설을 열었다. 이번 해설은 한글의 탄생부터 보급,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켜낸 이야기를 전시와 함께 소개하고 설명했다. 『훈민정음 언해본』부터 조선시대 한글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홍길동전』, 『심청전』의 방각본, 1894년 한글을 나라의 공식 글자로 인정하는 「고종 칙령 제1호」,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조선어 독본』, 우리말 사전 『말모이』 원고, 광복 후 첫 국정 국어 교과서인 『바둑이와 철수』 등을 함께 둘러보고 배울 수 있는 해설을 마련하였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글이 갖는 문자 독립의 가치를 이해하고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복 79주년 기념 행사

〈되찾은 나라, 되찾은 한글〉

김해한글박물관

경남 김해시에 김해한글박물관(관장: 이동희)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8월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되찾은 나라,



▲ 기념 행사 '한글 삼행시 뽑내기'

되찾은 한글)을 주제로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해에서 나고 자라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자, 우리 말글을 지키는 데 힘쓴 한산 이윤재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도 손도장 태극기·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한글 삼행시 짓기와 같은 행사와 광복절 특별 전시해설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새로 나온 책

♣ 우리말로 찾는 정음사전



박재성(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님이 지은 책. 2024년 7월 10일, 가나복스 펴냄. 국배판, 984쪽. 298,000원.

이 책은 글쓰기가 각 한자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말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자 사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쓴 책이다. 이

책의 첫장은 범례를 시작으로, ㄱ(기역)부터 ㅎ(히읇)까지 한글로 한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겹받침과 닿소리가 만난 경우의 발음

닿소리(자음)가 2개인 받침을 ‘겹받침’이라 합니다. 이들이 ㅎ 이외의 닿소리를 만나면, 곧 ‘받침1+받침2+닿소리’가 되면 1개만 발음합니다. 나머지 1개는 묵음이 되지요. (겹받침이 ㅎ를 만난 경우의 발음은 지난달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겹받침에 따라 발음하는 쪽이 다른데,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ㄱ, ㄴ, ㄹ, ㄷ, ㄹ, ㅂ, ㅅ 앞쪽(받침)을 발음: 닛[닉]도/뭉[뮉]만, 앓[안]지, 여뵈[열]다/뵈[뵈]다, 뉘[뉘]다, 훗[훗]다, 없[엣]는.

◆ ㄹ, ㄹ, ㄹ 뒤쪽(받침)을 발음: 닭[닥]장/늪[늑]지, 앞[엣]과/쫘[쫘]다, 읊[읊]는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ㄹ 겹받침을 가진 동사·형용사가 ㄱ로 시작하는 “~기, ~고, ~거나, ~거든, ~게” 등을 만나면 앞쪽을 발음합니다. “밖[밖]기, 늪[늪]고, 뽕[뽕]거나, 맑[맑]게”. 둘째, ㅂ의 경우, ‘뵈다’의 모든 활용형과, ‘뵈적하다, 뵈등글다’의 모든 활용형은 뒤쪽을 발음합니다. “뵈[뵈]다, 뵈[뵈]는, 뵈[뵈]기”, “뵈[뵈]적하다, 뵈[뵈]등글하다”.

위의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발음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 []은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을 적은 것입니다. 표준 발음이 아닌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 ① 시조를 잘 읊는다.[음는다] ② 이 동물이 재미있기야.[재미할끼]
- ③ 반죽이 너무 뭉다.[뭉따] ④ 사과 여뵈 개만 주세요.[여뵈]
- ⑤ 하늘이 맑게 개었다.[말께] ⑥ 다리뵈기 놀이도 했다.[다리뵈끼]

※ 위의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9월 15일까지 누리편지(saesosik@hangeul.co.kr)로 성명, 전화, 사는곳(도-시·군, 시-구)과 함께 보내 주십시오. 정답을 맞힌 분들 가운데서 추첨으로 세 분을 뽑아 모바일 문화상품권(10,000원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한글학회 마당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8월치 문제의 정답, 그리고 상품권 받으신 분

『한글 새소식』 제624호와 페이스북 한글학회 마당에서 8월 5일~15일 동안 공모한 ‘우리말 알아맞히기’의 정답은 “④ 창업 첫해[처대]라 업무가 좀 많아요.”입니다. 정답을 보내 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으로 아래 세 분을 뽑아 모바일 문화상품권(10,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강수현(인천광역시 부평구), 도화영(울산광역시 동구), 표예진(대구광역시 중구)

♣ 도와주신 이들

“고맙습니다”

※ 한글학회에 성금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2024. 7. 25.~ 8. 25.).

권오웅 20,000원 / 김경숙 10,000원 / 문무학 20,000원
 성다힘 20,000원 / 성새힘 20,000원 / 여여홍인 10,000원
 유영곤 20,000원 / 이은아 30,000원 / 이종구(성우) 10,000원
 장호철 10,000원 / 조재수 100,000원 / 황혜영 10,000원

(성금 계좌: 국민 009-01-1340-166 한글학회)

※ 『한글 새소식』 후원금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2024. 7. 25.~ 8. 25.).

김경숙 10,000원 / 오충신 100,000원 / 이순우 10,000원
 황혜영 10,000원

(후원 계좌: 우리 109-05-004155 한글학회)